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개발¹⁾

김양희 · 정경아

한국여성개발원

본 연구는 남녀의 능력과 성격, 역할, 사회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성차별과 남녀평등의식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문헌 연구와 자유응답조사(N=100명)를 통해 구인을 정의하고 검사의 이론적 구조(생활영역 차원×평등성의 질 차원)를 설정하였으며 문항 선택 및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와 예비 조사(N=195명)를 실시하였다.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전체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생활영역에 따른 4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검사의 심리측정적 질을 평가하기 위한 본 조사에서는 전국 4대 도시의 18~60세의 일반 성인 남녀 1,627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판별타당도 분석을 위해 여성운동가 147명에게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분석되었으며 검사의 성별 규준이 마련되었다.

I. 서론

사람들의 성역할의식이나 남녀평등의식을 진단하는 것은 심리학의 태도 연구 분야의 관심사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여성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Bem(1974)이 융(Jung)의 '양성성(androgeny)' 개념을 차용하여 성역할 검사(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개발한 이후 성(gender)과 성역할(gender role)의 개념을 다루는 검사 개발 연구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검사 구인

에 있어서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점점 정교하여져 왔다. 위에서 언급한 Bem의 성역할 검사를 비롯하여 Spence와 Helmreich 및 Stapp(1974)의 개인 속성 검사(Personal Attribute Questionnaire-PAQ) 등이 개인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검사라면 Spence와 Helmreich(1972)의 여성에 대한 태도검사(Attitude Toward Women Scale-AWS), Beere와 King 및 King(1984)의 성역할 평등주의 검사(Sex Role Egalitarianism Scale-SRES), Swim과 Aikin, Hall, Hunter(1995)의 구(舊)성차별주의(Old Fashioned Sexism)와 현대성차별주의(Modern Sexism) 검사, Tougas와 Brown, Beaton, Joly

1) 본 논문을 검토하고 격려와 함께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분께 감사드린다. 시간 및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미처 수용하지 못한 점은 후속연구나 몇 년 후 동 검사의 규준을 현행화할 때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1995)의 신(新)성차별주의검사(Neo Sexism Scale-NS) 등은 성차별 또는 남녀평등주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많은 검사들이 개발되었지만, 그 동안 한국에서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검사를 개발하는 작업이 부진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김영희(1988, 1995), 정진경(1990)에 의해서 한국형 성역할 검사가 개발되어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은 뱀의 성역할 검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항목들로 구성된 남성, 여성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태도라든지, 성 평등주의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국의 검사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일부 문항들을 삭제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상당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정진경, 1990). 특히 성역할이나 남녀에 대한 태도 검사는 특정 사회에서 전형적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야 하므로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또한 원검사에서 우리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문항 몇 개를 삭제하고 사용할 경우 원검사가 보장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의 검사를 번역·번안하여 사용하는 데 이러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직접 검사를 작성하여 간단한 신뢰도 분석(예: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 α 산출)만 하고 문항 분석이나 검사의 타당도 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생활 영역과 차원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보다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남녀평등의식을 다룬다고 표방한 종전의 검사들이 주로 성격특성이나 성역할을 다루거나, 남성을 간과한 채 여성에 대한 태도만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능력과 성격, 역할, 사회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많은 태도연구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 중 제한된 부분만을 측정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행동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 주지하여(Ajzen과 Fishbein, 1977) 남녀평등과 관련되는 태도를 구성하는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차별)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고자 한다.

II. 성평등/차별주의 검사 개발 동향

성 관련 검사들은 사람들의 성역할 신념 체계나 성 관련 주제들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결과를 탐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McHugh와 Frieze, 1997). 하나의 검사의 지저에는 그 검사가 근거로 하는 이론적 관점과 견해가 흐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성 관련 주제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그에 기초한 검사들이 비록 다양하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 관련 검사들의 개발 동향을 성 평등(차별)주의 검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BSRI 등의 성역할 특성 검사가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등으로 구분되는 남녀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검사들인 반면 성평등(차별)주의 검사들은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태도, 페미니즘 운동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공공 정책에 대한 태도 등, 포괄적인 남녀평등주의 혹은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들이다.

전통적으로 성평등 혹은 성차별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는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념이다. 이것은 '여자와 남자는 이리이러 해야한다'는 당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인 특질이나 흥미, 행동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고정관념과 어느 정도 관련은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성역할 태도 구인은 특히 남녀평등주의 내지는 성차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진다. 한 사람의 성역할 태도는 중성적이라기보다는 그의 성평등적 또는 성차별적 신

념을 반영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차별주의 내지는 성에 근거한 차별적이거나 편견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과 동등시 되어 왔다(Campbell, Schellenberg, & Senn, 1997). 그리고 성평등(차별)주의 검사의 개발은 성역할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성차별 혹은 성평등적인 태도를 밝히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역할 태도 검사는 Spence와 Helmreich(1972)의 Attitudes Toward Women Scale(AWS)이다. AWS는 심리측정학적 측면에서 비교적 신뢰로운 절차를 통해 개발되었고(Beere, 1990)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어져왔으나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라기보다는 여성의 역할 및 권한에 초점을 맞춘 검사라는 점(McHugh와 Frieze, 1997; Swim과 Cohen, 1997), 남성에 대한 태도를 배제하였다는 점, 문항들이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가지고 있다는 점(Beere, 1990; Fassinger, 1994)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AWS가 개발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평등적 또는 불평등적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화를 시도하며 그에 근거한 검사를 개발하였다. Osmond와 Martin(1975)의 Sex-Role Attitude(SRA)는 불평등한(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성에 기초한 이분법적 태도로, 평등한(현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연하고 역동적인 성역할의 전환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규정하였다. Brogan과 Kutner(1976)의 Sex-Role Orientation(SRO)은 '남성과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에 대한 표준(규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성역할 정향성을 측정하는 단일 차원(unidimensional)의 검사를 제안하였다. 1980년대에 개발된 Beere 등(1984)의 Sex Role Egalitarianism Scale(SRES)은 성인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할(부부역할, 부모역할/자녀양육, 고용, 다양한 사회적 관계, 교육)과 관련한 평등주의를 측정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모두 측정하며 세심한 심리측정학적 절차를 따랐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SRES 역시 '역할' 중심의 평등주의적인 태도만을 다룬 검사라는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

AWS 등의 검사들이 전통적이고 명백한 성차별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암묵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태도는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 개발된 검사들은 성역할 태도 전반을 다룸으로써 성차별적인 성역할 태도를 드러내려했던 이전의 검사들과는 달리 현대적인 성차별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미시적인 개념화를 바탕으로 이를 측정해낼 수 있는 검사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Benokraitis와 Feagin(1995)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성차별의 개념은 이러한 현대적인 성차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들은 먼저 명백하고 가시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쉽게 문서화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하고 해로운 대우를 의현적 성차별(overt sexism)로 규정하고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는 AWS와 같은 척도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공개적인 승인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숨겨지거나 비밀한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을 불평등하고 해롭게 대우하는 태도는 은폐된 성차별(covert sexism)로서 이것은 자기는 성평등을 옹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여성의 일이나 업적을 손상시킨다든지 그 일이 실패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교묘한 성차별(subtle sexism)은 관습적이거나 정상적인 행동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공개적으로 불평등하고 해로운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Swim 등(1995)도 성차별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구 성차별(old-fashioned sexism)과 현대적인 성차별(modern sexism)을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성차별을 반영한 검사를 개발하였다. 여기에서 구 성차별은 AWS에 의해 다루어지는 전통적인 성역할 특징을 유지하려는 신념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들의 특성관련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으로 구성된다. 반면, 현대적인 성차별은 여성에 대하여 지속되는 차별에 대한 부인,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반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적극적인 조치와 기타 정책들에 대한 지지의 결여로 구성된다. 연구자들에게 의하면 구 성차별은 앞서의 노골적이거나 명백한 성

차별(overt sexism)과 연결되고 현대적인 성차별은 미묘하거나 암묵적인 성차별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개념화에 따라 Swim 등(1995)은 구 성차별주의와 현대 성차별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Old-Fashioned Sexism(OFS)과 Modern Sexism(MS)이라는 두 개의 하위 검사를 만들었다. Swim과 Cohen(1997)이 OFS와 MS를 AWS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OFS와 AWS는 서로 상관이 높으며 이들 AWS와 OFS는 MS와는 구별되는 구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적인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대표적인 검사로는 캐나다에서 Tougas 등(1995)에 의해 개발된 Neosexism Scale(NS)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neosexism(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이란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지지의 결여로 규정된다. 이 검사는 여성들에 대한 지지가 또 다른 불평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잉 보상이며 특혜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해 낸다.

이상과 같은 은폐되고 교묘하게 숨겨진 현대적인 성차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성차별주의에 대한 개념화를 제안하는 최근의 또 다른 이론은 Glick과 Fiske(1996, 1997)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이다. 이들은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주관적인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을 둘 다 포함하는, 근본적으로 양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적대적 성차별(Hostile Sexism)과 우호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을 측정할 수 있는 Ambivalent Sexism Inventory(ASI)를 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현대 성차별 검사 도구로서 점점 정교화 되어가고 있는 성차별 개념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검사는 Ashmore와 Del Boca 및 Bilder(1995)의 Gender Attitude Inventory(GAI)이다. GAI는 한 개인의 성 관련 태도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현대적'이면서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중도적'이고 또 다른 성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시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4개 차원 14개 내용 영역으로 이루어진 다면적 검사를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서구에서는 성역할 특성검사는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 온 성차별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주의 또는 남녀평등주의 검사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개인의 성차별이나 남녀평등주의가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태도이고, 그 태도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면적이며 복합적인 내용의 성차별/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검사의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다.

III. 검사 개발 과정

1. 구인의 정의

구인에 대한 개념화와 그것의 타당화 과정은 검사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의 개발 과정은 이러한 구인에 대한 정의로부터 출발하였다. 남녀평등주의(gender-egalitarianism)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 연구자들은 한편으로 기존에 개발된 성 관련 검사들의 이론적 배경 및 성평등이나 성차별을 다룬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남녀평등주의와 관련한 검사들은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성평등 혹은 성차별적인 태도를 측정하려는 검사들과 역할 중심의 검사를 넘어서서 성차별에 대한 정교하고 구체화된 개념화를 시도하는 보다 최근의 성차별 검사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남녀평등주의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진은 남녀평등의식의 측정에 있어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만을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동시에 남녀평등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검사들이 누적되어 온 서구의 풍토에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인지도나 평등주의 정책에 대한 태도를 주로 측정하는 미시적이고 정교화된 성차별 검사로는 한국인의 남녀평등의식을 담아내기에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후자의 검사들의 경우 어떤 의

미에서는 전자의 검사들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한정자·김선옥·김원홍·김영혜·김동령, 1993).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KGES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남녀평등주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능력 및 성격에 대한 고정 관념, 성역할 고정 관념,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리, 인권, 자유에 대한 태도, 여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남녀평등주의에 대한 개념은 태도의 3요소를 구성하는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감정적 요소), 차별(행동적 요소)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남녀평등주의는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규정될 수 있다.

2. 검사의 이론적 구조 설정

검사의 내용상의 하위 구조는 검사 문항들이 정의된 구인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남녀평등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나 기존의 남녀평등주의와 관련한 검사들에 대한 분석이나 전문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일반인(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은 남녀 대학생과 일반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구인에 대한 개념 조사를 개방형 질문들(예: 남녀평등한 의식을 갖춘 남성

과 여성의 생각과 행동의 특성; 반대로 남녀평등하지 못한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성; 성격 및 행동특성, 능력에서 남녀의 차이점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일반인들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연구자들은 역할 및 관계의 영역을 한 축으로 하고 평등주의의 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을 한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matrix) 구조가 남녀평등주의를 측정하는 데 합리적인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활영역을 한 축으로 설정한 이유는 남녀평등의식이 생활영역이나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Ashmore 등(1995)의 연구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때로는 특정영역의 평등의식만을 검사하기 원할 수 있겠다(예: 노동문제 연구자는 직업생활영역만 활용)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의식의 질적 특성을 다른 한 차원으로 설정한 것은 Beere 등(1984)이 평등성을 자질, 능력, 의무, 권한, 기회로 나누어 정의한 것을 참고로 보완한 것이다. 남녀평등의식검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골격이 되는 4개의 하위 영역과 4개의 질적인 차원은 다음과 같다.

(1) 차원 1: 생활 영역(life domain dimension)
 첫 번째 차원인 생활영역 차원은 개인의 삶의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눈 것으로서, 각 영역별 점수는 하위 점수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가정 생활: 가정적 삶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가정 내 사회화의 문제, 가정 내 남녀의 역할과 행동기준, 부부간/부모-자녀간의 권한과 관계의 성격에 대한 규정, 가족 내 성차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함
- ② 교육 생활: 교육과 능력 개발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녀의 지적 능력 및 잠재력,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의 사회화의 문제, 교육 기회 등 교육에 대한 권한,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함
- ③ 직업 생활: 경제활동에서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취업활동과 관련한 남녀의 능력과 속성, 직업적 역할과 행동기준, 직업 현장의 남녀간 권한과 권력 관계, 성차별과 고용 정책

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함

- ④ 사회·문화 생활: 가정이나 직업 영역 밖에서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성문화, 직업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 미디어에서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 등을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남녀의 능력과 속성, 역할과 행동 기준, 권한과 권력 관계, 그리고 성차별과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함

(2) 차원 2: 평등성의 질(quality of equality dimension)

검사 개발을 위한 이론적 구조의 두 번째 차원은 평등성의 질적인 특성 차원이다. 평등주의의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내용인 성별 능력과 속성에 대한 태도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한 내용, 해당 영역에서의 성별 권한 및 권력 관계에 대한 태도, 이제까지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 권력의 불균형, 권한의 부재 문제를 성차별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 ①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태도: 남녀의 능력 및 속성에 대한 판단으로서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포함함
- ②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행동에 대한 규범: 남녀의 역할 및 행동 규범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 이중적 기준의 적용 등을 포함함
- ③ 여성과 남성의 권한 및 권력에 대한 태도: 남성과 여성의 권한, 관계의 평등성, 남성 우호주의적인 태도 등을 포함함
- ④ 성차별 인지도 및 평등정책에 대한 태도: 고용현장, 학교, 미디어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성차별에 대한 인지 정도, 할당제 실시,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성차별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태도,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함

남녀평등의식의 개념적 구조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설정하였는데, 질적인 측면은 문항제작시 다양한 평등의식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유용성이 크고, 생활영역 측면은 연구자들이 영역별 하위척도를 활용하는데 더 큰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문항의 제작

앞 절에서 제시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은 광범위한 문항집합을 구성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외국에서 개발된 남녀평등주의와 관련한 검사들의 문항을 번안하고, 국내에서 활용된 검사문항들을 수집하였다. 기존의 검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그대로 번안한 문항도 포함되었으나 대부분의 문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주의 개념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연구진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최초의 문항 집합을 만드는 단계에서 연구진이 고려한 문항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검사의 이론적 구조의 생활영역 차원과 평등성의 질적 차원에 적합한 문항을 제작한다.
- ② 태도의 3요소를 구성하는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감정적 요소), 차별(행동적 요소) 중 하나를 가능한 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 ③ 가급적 남녀 차별적인 방향으로 기술된 문항과 남녀평등한 방향으로 기술된 문항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④ 가급적 문항의 주체가 되는 성이 여성인 문항과 남성인 문항이 적절히 섞이도록 한다.
- ⑤ 한 문항 내에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경우 '~만큼, ~보다, 똑같이' 등 명확한 비교 기준을 제시한다.
- ⑥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가능하면 쉬운 어휘를 사용하며 추상적 어휘 사용을 배제하되, 짧고 간결한 문장이 되도록 하며 애매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또 문항의 응답방식으로 리커트식 척도를 채택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술의 방식은 가능한 한 강하고 극단적으로 하고 이중 부정은 지양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된 문항 원집합(original pool)의 총 갯수는 228개이나 이 중에서 각 영역 내에서 지나치게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4개의 하위 영역에 가장 적합한 문항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177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4. 하위 영역과 문항의 타당화 과정

연구진이 일차 제작하여 초기 선별과정을 거친 문항 집합을 대상으로 이 문항들이 남녀평등의식검사를 위해 얼마나 전형적이고 얼마나 타당한 문항들인가를 평가하고 전체 문항 집합에서 도구의 이론적 틀에 가장 적합한 최종적인 문항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내용타당화의 1단계 과정은 제작된 검사 문항들이 하위 영역에 얼마나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문제 연구자 5명에게 4개의 하위 영역과 4개의 차원을 설명하여 준 다음 177개의 문항이 적힌 카드 177장을 주고 각 문항이 어느 영역에 소속되는 것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테이블 위에 붙여진 4개의 하위영역의 이름표 밑에 카드들을 분류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의 문항 분류결과 5명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영역으로 분류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5명 전원이 일치한 문항들은 총 155개의 문항이었다. 전문가들의 문항 범주화 결과 5명 전원의 일치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문항이 남녀평등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일 경우 전문가들이 보다 많은 일치한 영역에 적합하도록 문항의 내용을 명료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또 비슷한 성격의 문항들이 있을 경우 여러 영역에 분산되지 않고 같은 영역에 속하도록 주의하여 배치하였다. 이렇게 5명의 외부 전문가들과 연구진의 최종 판단에 근거해 문항을 삭제, 수정, 재배치한 결과 수정된 문항 집합은 총 16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2단계: 문항의 효과성 및 하위척도 반영도 평정

2단계의 전문가 평정은 대학부설 여성연구소 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원 등 15명의 여성문제 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에게 167개의 문항들을 영역별로 제시하고 ①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데 각 문항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②각 문항이 소속된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를 각각 5점 만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결과와 분석은 문항의 남녀평등의식 측정 타당성 점수와 하위 영역 적합성 점수를 각각 4

점 이상으로 평정한 전문가들의 수가 전체 15명 중 80%인 12명 이상이 되는 문항들만을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문항은 총 113문항이었다. 영역별로는 가정생활영역이 30문항, 교육생활영역이 26문항, 직업생활영역이 28문항, 사회·문화생활영역이 29문항이었다.

5. 예비조사

전문가 평정 결과 선정된 1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검사(안)를 가지고 서울의 일반 성인과 남녀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108명(55.4%), 남성이 87명(44.6%)이며, 대학생이 97명(49.7%), 일반 성인이 98명(50.3%)이었다.

연구진은 검사 자료에 대한 일차적인 심리측정적 분석을 통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SPSS PC+를 이용해 예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예비검사 도구의 하위 영역별 내적일관도계수(Cronbach α)와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예비검사 하위영역별 신뢰도와 문항-하위척도 총점 상관관계

하 위 영 역	α	문항 - 총점 상관계수
가 정 생 활	.9141	.16 - .67
교 육 생 활	.9058	.12 - .69
직 업 생 활	.9203	.19 - .73
사 회 문 화 생 활	.8725	.05 - .65

6. 최종 문항의 확정

예비 검사 자료의 분석 결과, 각 하위 영역의 내적 일관도 계수는 .87~.92로 태도 검사의 신뢰도로서 안심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연구진은 문항의 심리측정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영역에서 문항-총점 상관이 매우 낮은 문항과 편포가 심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연구진과 전문가에 의한 최종적인 문항 검토를 한번 더 걸친 후 하위 영역별 20문항씩 총 80문항이 본 검사의 문항으로 확정되었다.

표 2. 일반 성인집단의 특성

변 인		명 (비율)	변 인		명 (비율)
지 역	서울	751(46.2)	직 업	없음	146(9.0)
	대구	477(29.3)		주부	435(26.7)
	광주	216(13.3)		학생	144(8.8)
	대전	183(11.2)		전문직	180(11.1)
성	여자	873(53.7)		행정·관리	137(8.4)
	남자	754(46.3)		사무	119(7.3)
나 이	18~30세	547(33.6)		판매서비스	334(20.5)
	31~45세	716(44.0)		생산	115(7.1)
	46~60세	364(22.4)		농림	7(0.4)
혼인상태	기혼	1,248(76.7)		기타	2(0.1)
	미혼	356(21.9)		무응답	8(0.5)
	이혼/사별	23(1.4)		수 입	100만원이하
학 력	중졸이하	222(13.6)	101~150만원		438(26.9)
	고졸	670(41.2)	151~200만원		290(17.8)
	대졸	642(39.5)	201~250만원		219(13.5)
	대학원	88(5.4)	251~300만원		167(10.3)
무응답	5(0.3)	301만원	140(8.6)		
무응답			무응답	34(2.1)	
계			1,627(100.0)		

7. 본 조사

지금까지의 절차를 통해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의 최종적인 문항이 확정된 후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고 검사 사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표본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적용 대상은 우리 나라의 만 18세부터 60세 사이의 성인이다. 검사의 적용 대상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표집이 이루어져야하나 본 연구의 예산 규모 안에서 불가능하였으므로 전국의 권역별로 중심에 있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의 4개 대도시를 택하였다.¹⁾

4대 도시의 가구 수를 찾아서 전체 표본 수 1,600명에 비례해 각각의 도시에 표집 인원을 할당하고(서울 750명, 대전 180명, 광주 210명, 대구 480명) 서울

에서는 4개의 구를, 나머지 지역에서는 각각 2개씩의 구를 선정하고 한 개의 구에서는 두 개의 동을, 한 개의 동에서는 동의 크기에 따라 1~2개의 반을, 한 개의 반에서는 50명 정도를 표집하는 4단계 층화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 성인에 대한 검사는 훈련된 조사원 12명에 의해 1998년 11월 9일~27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조사원과 응답자간의 일대일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응답자의 자기 기입도 허용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면접할 때는 기준 작성을 위해 중요한 집단변인인 성,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각 변인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면접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반 성인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녀평등의식검사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이들과 일반인들의 조사를 병행하여 두 집단간 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성운동가에 대한 표집은 여성단체 명부를 이용하여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중에서 상근자를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32개 단체를 선정한 후 우편을 이

1) 서울: 강남구(도곡1동, 수서동), 노원구(상계8동), 용산구(이촌1동, 원효로2가), 강서구(등촌1동, 방화3동), 대전: 중구(문화2동), 대덕구(오정동), 광주: 광산구(월곡1동), 북구(두암3동), 대구: 수성구(중동), 서구(평리4동)

표 3. 여성운동가집단의 일반적 사항

변인		명 (비율)	변인		명 (비율)
나이	18~30세	65 (43.6)	학력	고졸이하	18 (12.1)
	31~45세	66 (44.3)		대졸	96 (64.4)
	46~60세	18 (12.1)		대학원	35 (23.5)
혼인상태	기혼	79 (53.0)	근무경력	1년미만	27 (18.1)
	미혼	67 (45.0)		1~5년	73 (49.0)
	이혼/사별	3 (2.0)		5~10년	29 (19.5)
근무형태	전임상근	130 (87.2)		10~20년	17 (11.4)
	시간제	19 (12.8)		20년이상	3 (2.0)
계		149 (100.0)	계		149 (100.0)

용하여 이루어졌으며 197부의 조사표를 발송하여 16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2%). 회수된 162부의 질문지 중에서 응답자가 단체의 실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49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도구

본 조사를 위한 도구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80문항)가 포함되었고,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성역할검사도구(Korea Sex Role Inventory-KSRI) 40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들(6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검사자료는 SPSS PC+ 및 Window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 타당도 분석 중 가장 우선적인 분석은 문항양호도와 관련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지별 반응비율 및 편포정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점수와 하위척도 점수간 상관관계 분석이 포함된다. 두 번째 분석은 검사의 차원에 관한 분석이다. 앞의 검사개발과정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는 네 가지의 생활영역 차원과 평등성의 질 차원으로 구성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구인 타당도의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분석 역시 타당도 분석이다. 여기서는 성별, 연령집단별, 지역별 차이, 일반

인과 여성운동가의 차이 등에 대한 가설을 검증(2)함으로써 검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규준제시에 필요한 통계치를 얻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로 정진경의 한국형성역할검사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 점수의 관계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섯 번째 분석은 신뢰도 검증을 위한 분석으로서, Cronbach의 α 를 이용한 내적일치도 분석, Spearman-Brown의 반분신뢰도 분석이 포함된다.

IV.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및 표준화

1. 타당도 분석

타당도를 나타내는 단일한 계수는 없고 어떤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증거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본 남녀평등의식검사의 경우도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과정에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본 조사 자료를 이용한 타당도 분석으로 기초적인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집단별 차이분석, 그리고 변별 타당도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비록 재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었으나 익명의 심사자에게서 변량분석에서 표본이 다층이었기 때문에 하위집단의 β_0 로 인한 효과를 제외시킨 평균이 비교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1) 기초문항분석

① 반응비율, 편포, 평균과 표준편차

검사개발과정에서는 대개 최종적으로 남기려 하는 문항 수의 2배수 정도의 문항들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분석과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등을 통하여 문항을 선별한다. 본 연구의 도구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도 228개 문항 원집합을 가지고 시작하여 최종 문항수 80개를 확정하였다. 문항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각 문항에서의 응답비율, 각 문항별 응답지별 반응비율, 편포정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들은 제Ⅲ장에서 설명한 예비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일차적인 문항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본 조사에 사용된 최종 문항들에 응답지별 반응 비율(반응 비율 지표인 무응답 포함)은 21번 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1.0% 이하로서 전체적으로 무응답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문항별 편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skewness) 역시 모두 절대치 2.0보다 작아 심한 편포를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흔히 문항 양호도의 근거로 활용되는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태도 검사인 본 검사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문항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② 문항 - 척도 상관 및 척도간 상관

Nunnally(1978)는 문항 - 척도 상관관계를 중다응답지 양식에서의 가장 좋은 지표로 간주한다. 오차검증에 대한 고전적 모델에서는 문항 - 전체 상관이 문항과 전체 문항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과의 상관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 대개는 문항 - 전체 상관계수가 3 이상일 때 그 문항이 선택된다(Kline, 1993: 148-149).

표 4는 전체 성인 남녀, 그리고 성별로 각 문항점수와 그 문항이 속한 하위척도 점수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항과 그가 속한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Pearson 상관계수는 가정생활척도가 .3754 ~ .5886이며 교육생활척도는 .2932 ~ .6660, 직업생활척도는 .2348 ~ .7176, 사회·문화생활 척도는 .1842 ~ .5779이다. 사회·문화생활척도는 다른 하위척

표 4. 문항-척도 상관관계

문항 (가정)	문항-가정 상관관계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교육)	문항-교육 상관관계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직업)	문항-직업 상관관계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사문)	문항-사문 상관관계	문항-전체 상관관계
1	.4853	.4736	3	.2932	.2384	2	.6123	.5819	7	.3266	.2759
5	.5653	.4993	6	.4553	.3854	4	.6938	.6325	8	.2532	.1633
11	.4583	.3999	9	.5681	.5070	13	.6210	.5659	10	.3566	.3127
14	.3784	.3119	16	.5681	.5080	15	.4314	.4037	12	.4899	.4535
25	.3754	.2909	19	.4813	.4772	18	.6051	.5838	17	.5187	.5279
28	.4523	.4418	21	.5145	.6130	20	.5468	.5218	24	.5566	.5244
34	.5396	.4836	23	.6367	.6056	22	.2969	.2683	26	.5121	.4722
35	.5784	.5312	27	.4501	.3810	30	.4245	.4061	29	.3012	.1756
37	.5327	.4867	31	.5872	.5708	32	.5318	.4855	33	.5779	.6130
40	.5298	.5508	38	.6624	.6541	41	.6735	.6711	36	.3549	.2804
44	.4865	.4451	42	.6660	.6928	47	.4594	.4326	39	.4453	.3910
50	.5843	.5738	45	.4159	.4350	48	.4756	.4678	43	.3644	.3019
54	.4891	.4881	46	.5610	.5304	53	.3459	.3047	49	.2701	.1495
57	.5464	.5491	52	.5058	.4904	56	.4070	.3793	51	.3532	.2761
61	.5520	.5055	55	.3606	.2594	60	.7176	.6938	59	.2597	.2557
64	.5431	.4870	58	.4511	.4153	63	.2348	.1396	66	.4852	.5060
69	.3828	.3096	62	.6154	.5808	65	.5301	.5041	68	.5506	.4991
71	.4176	.3573	72	.3283	.3153	67	.5471	.5376	70	.4727	.3929
73	.5556	.5256	76	.5674	.5498	75	.5118	.5264	74	.1842	.1612
77	.5886	.5425	79	.5815	.5477	80	.6474	.6293	78	.4250	.4655

* 이상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도에 비하여 내용이 더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문항 - 하위척도 상관계수도 다른 하위척도들보다 낮아서 문항 선별 기준인 .3이 안되는 문항이 네 개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들의 타당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표 5의 상관계수들이 보여주듯이 전체척도와 각각의 하위척도사이의 상관관계는 .9346~.878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각 하위척도간 상관관계 역시 .7397~.8270 사이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집단별로 볼 때 거의 이러한 상관계수들은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운동가 집단에서 더 높았다. 즉, 여성운동가 집단의 경우 척도별 남녀평등의식이 서로 더 높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남녀평등의식이라는 사회심리학적 구성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가정한 이론적 요인들이 검사도구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타당성 검증의 일환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요인분석방법보다 공통요인분산과 고유분산을 분리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공통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제Ⅲ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남녀평등의식검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는데 하나는 생활영역차원(life domain dimension)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성의 질 차원(quality of equality dimension)이다. 여기에서 생활

영역차원은 개인의 삶의 공간을 횡적으로 나눈 것으로서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검사가 이 네 가지 영역별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로 활용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이 영역들은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전체가 모여서 개인의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원인 평등성의 질 차원은 연구자들이 남녀평등의식이라는 개념을 여성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간 불평등과 여성 차별적 현상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유추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유추에서는 여성연구자로서의 연구진의 경험과 초기의 예비조사과정에서 여성문제전문가 및 준전문가 집단의 작업들이 기초가 되었다. 하위척도로 사용된 생활영역차원은 삶의 다양한 영역을 공간적으로 나눈 것이므로 요인구조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연구진과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등의 질을 나타내는 네 가지 요인들이 생활영역별로 분류한 하위 척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PAF)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가정생활척도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후 세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총변량 중 30.9% 설명), 그 중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요

표 5. 척도간 상관관계

		일반남녀	일반여성	일반남성	운동가
전체 척도와	가정생활척도	.9092	.8883	.8878	.9376
	교육생활척도	.9229	.9246	.9080	.9198
	직업생활척도	.9346	.9238	.9118	.9420
	사회문화생활척도	.8789	.8637	.8442	.9507
가정생활 척도와	교육생활척도	.7760	.7521	.7293	.8244
	직업생활척도	.7991	.7591	.7329	.8510
	사회문화생활척도	.7397	.6893	.6759	.8519
교육생활 척도와	직업생활척도	.8270	.8281	.7721	.8167
	사회문화생활척도	.7427	.7309	.6749	.8269
직업생활 척도와	사회문화생활척도	.7680	.7253	.7156	.8638

※ 이상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6. 가정생활척도의 요인행렬

문항내용	요인 1 권력관계 및 제도 요인	요인 2 역할요인	요인 3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
64. 부부는 결혼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61555		
34.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55627		
44. 결혼한 남자는 처가족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54298		
25.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52808		
71.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51569		
73. 딸, 아들 구별 없이 집안일을 시키겠다.	.45737		
14. 폐백은 양가 부모님께 모두 드려야 한다.	.42101		
61. 결혼한 아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	.39505		
69. 호주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28395		
50.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62955	
54.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62719	
40.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이 행복하다.		.54411	
35. 집안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48549	
57.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외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이다.		.39114	
28.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엄마의 책임이 아버지보다 더 크다.		.32944	
37.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는 시댁과 남편에게 떳떳치 못하다.			.57326
77. 결혼한 여자가 친정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55456
5. 내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48277
1.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41473
11.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34049

인이 두 개였다(표 6). 각 요인에 비교적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가정생활척도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고유치 4.45370)은 가정 내 권력 관계 및 제도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주로 가정내 남녀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 요인은 고유치는 1.0 이하였으나, 적재량이 높은 문항들을 살펴볼 때 가부장 중심의 가족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문화에서 가정생활 속의 남녀차별/평등의 문제는 속성이나 본질의 문제보다 역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보다 가정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와 가부장 중심성이 남녀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요인들이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② 교육생활척도

두 번째 하위척도인 교육생활척도의 20문항에 대해

역시 베리믹스 회전 방법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덟 번의 회전후 모두 네 가지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 변량의 32.3%를 설명하였다(표 7). 가장 설명력이 높은 첫 번째 요인은 주로 교육현장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권력관계와 관련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요인과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의 고유치는 1.0 이하이지만 각각 평등 교육제도에 대한 태도, 성분리적인 진로 교육을 옹호하는 입장, 남녀의 소질이나 능력에 대한 본질론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연구자들이 설정한 평등의 질의 네 가지 요소들은 교육영역에서는 역할과 권력에 대한 태도가 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평등교육제도 요인과 본질론 요인은 각각 별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③ 직업생활척도

직업생활척도를 구성하는 스무 개의 문항에 대해 베리믹스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 두 일곱 번의 회전이 이루어진 후 표 8과 같이 네 개

표 7. 교육생활척도의 요인행렬

문 항 내 용	요인 1 역할/권력 관계요인	요인 2 평등교육 제도요인	요인 3 성분리적 진로요인	요인 4 소질/ 능력요인
38. 지도력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62961			
23.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지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	.57779			
21. 남녀 혼성 학급의 반장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54852			
42. 교장과 같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54258			
62.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51352			
52. 학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압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45105			
16. 성교육은 남학생보다 순결이 요구되는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	.39290			
27.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학교의 체육수업과 스포츠활동은 남학생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37206			
58.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51963		
45. 교사양성과정에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5852		
19.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44009		
72. 교사는 여학생들이 과학이나 공학분야로 진학하도록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43637		
3.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타고난 지적인 능력의 차이는 없다.		.16712		
9. 여자는 법학, 기계공학 등 전통적인 남성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50195	
76.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42216	
31. 남자는 간호학, 가정학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40018	
79.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목표는 달라야 한다.			.30470	
6. 여자는 남자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54857
55. 암기과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한다.				.42712
46.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41213

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가 설명하는 변량은 32.5%였다. 첫 번째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남자와 여자의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식을 다루는 것이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고유치가 낮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 요인이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인지도 및 평등고용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각각 비전형적인 직업에 대한 태도요인과 남성 중심주의 요인으로 보인다.

④ 사회문화생활 척도

마지막 하위척도인 사회·문화생활척도에 대해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아홉 번의 베리맥스 회전 후

다섯 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전체가 설명하는 변량은 24.3%였다(표 9). 다섯 개의 요인 중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첫째와 둘째 요인이었는데 첫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은 여성의 수동적 역할을 강요하거나 남녀의 속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사회·문화생활척도에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역할 및 능력요인인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요인은 평등문화 및 정책지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요인에 고유한 적재량을 보인 문항은 '여자라고 숨어서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는 문항 하나로 나타났고 네 번째 요인에 적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반(反) 여성주의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다섯 번

표 8. 직업생활척도의 요인행렬

문 항 내 용	요인 1 능력 및 역할요인	요인2 평등정책 요인	요인3 비전형적 직업요인	요인4 남성중심 주의요인
80. 남자는 업무계획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63878			
41.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보다 여자 직원이 하는 것이 좋다.	.59234			
60.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57533			
2.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들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	.51436			
20.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	.45823			
65. 여자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45326			
47.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43179			
18.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40938			
22. 여자는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	.31127			
56.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가볍게 던지는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과민 반응이다.	.31104			
30.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에게 예절을 더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51004		
15. 채용면접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49593		
67.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48329		
32. 기업이 직원을 줄일 때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47094		
53.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8462		
63. 여자의 수가 매우 적은 직업에 여자를 일정한 비율 뽑도록 하는 할당제에 찬성한다.		.17717		
75. 여자들이 중장비 기사와 같은 남자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57325	
48. 남자들이 유치원 교사, 영양사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46505	
4. 자격이 같은 남녀 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				.56525
13.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여자보다 남자를 뽑겠다.				.51225

째 요인은 미디어의 여성 상품화와 관련된 문항들이 주로 해당되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남녀평등의식 검사의 네 가지 하위차원 각각에 대한 공통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하위척도는 스무 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등주의의 질과 관련한 네 개의 요인이 각각 분명히 나타나기에는 문항수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는 설명력이 크지 않았다. 하위척도에 따라서 연구자들이 가정한 본질론요인, 역할요인, 성차별과 평등정책요인이 별도의 요인으로 잡힌 경우가 있지만 권력관계요인은

별로로 잡히기보다는 역할요인이나 평등정책요인과 함께 묶여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고유치는 낮았지만 가정생활척도에서는 가부장 중심성요인이, 교육생활척도에서는 성분리적 진로요인이, 직업생활척도에서는 남성중심 고용관행요인이, 사회·문화생활척도에서는 반여성주의 요인이 나타났다.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사회·문화생활척도의 요인 수가 많으면서도 전체 설명하는 변량은 적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회·문화생활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이질적이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인부하량을 중심으로 하는 문항군과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 문항군은 서로 다르게 나

표 9. 사회·문화생활척도의 요인행렬

문항내용	요인1 역할 및 능력요인	요인2 평등문화 및 정책 지향요인	요인3	요인4 반 여성주의 요인	요인5 미디어 상상품화 요인
24.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	.58520				
33. 남녀관계에서 여자는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한다.	.51432				
78.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남자는 사귀는 여자보다 학벌이 좋아야 한다.	.46458				
17. 여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	.45875				
68.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42061				
26.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	.40367				
12.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37935				
70.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35574				
49.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27438				
66. 텔레비전에서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금보다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48939			
59. 여자는 남자가 선택해주시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41565			
74. 컴퓨터 통신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40496			
10. 여자들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38620			
36.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에 여자 전문가를 더 많이 출연시켜야 한다.		.31914			
8. 성(性)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31598			
7. 여자라고 숨어서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			.31982		
39.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38618	
43. 여자들은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특혜를 요구한다.				.34098	
29. 여성의 외모 중시 풍조를 부추기는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45342
51. 광고에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지 여성차별이 아니다.					.32197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의 요인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평등성의 질 차원이 포괄적인(global) 의미의 남녀평등의식을 개념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검사 개발자들이 생활영역별로 독립적인 척도를 개발할 경우에는 별개의 요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예: 가정생활척도의 경우 가부장 중심성 요인).

(3) 집단별 차이에 대한 가설검증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세번째 작업은 집

단별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① 가설 1: 여성운동가 집단이 일반성인 집단에 비해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질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여성해방이념과 남녀평등주의를 수용하고 사회에서 여성권익을 신장시키고 남녀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일반성인들에 비하여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점수가 더 높아야 할 것이다. 하위척도 점수들과 전체 척도 점수에서의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

표 10. 일반인과 여성운동가의 남녀평등의식

척도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df	p
가정	일반	1) 2.8834 2) 57.6682	.435* 8.698**	-29.09	202.21	.000
	운동가	1) 3.7010 2) 74.0205	.312 6.246			
교육	일반	1) 2.9065 2) 58.1290	.463 9.264	-25.84	201.15	.000
	운동가	1) 3.6692 2) 73.3846	.323 6.465			
직업	일반	1) 2.8009 2) 56.0182	.462 9.234	-27.03	189.31	.000
	운동가	1) 3.6570 2) 73.1408	.350 7.008			
사회	일반	1) 2.5763 2) 51.5268	.360 7.206	-29.60	1685	.000
	운동가	1) 3.5243 2) 70.4857	.390 7.795			
전체	일반	1) 2.7979 2) 237.1465	.395 28.6948	-28.85	174.58	.000
	운동가	1) 3.6454 2) 291.6316	.316 25.2558			

1) 평균을 이용 2) 합을 이용

가설은 지지되었다. 일반인과 여성운동가 집단 모두 네 가지 하위척도 중 사회·문화생활척도에서의 태도가 가장 보수적이며 네 가지 하위척도 모두와 전체척도에서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의식이 일반성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평등하게 나타났다($t=-29.60 \sim t=-25.84$, $p<.000$).

② 가설 2: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보일 것이다.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예: 김양희, 1991; Campbell 등, 1997; Helmreich, 1981 등)에서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하위척도는 물론 전체 척도점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더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3.99 \sim t=20.44$, $p<.000$).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으며, 이 또한 검사의 타당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③ 가설 3: 저연령층이 고연령층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질 것이다.

남녀평등의식이나 평등주의가 연령과 관계 있으며 그 양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Twenge, 1997 등). 따라서 연령집단별로 분석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일반성인 응답자의 연령을 18~30세, 31~45세, 46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집단별 척도평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연령대에서 고연령대보다 평등적으로 나타났다($F=40.22 \sim F=79.79$, $p<.000$). 연령의 효과가 세 가지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유의미한지 Scheffe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④ 가설 4: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남녀평등한 의식을 보일 것이다.

개인의 성역할의식 및 남녀평등의식은 교육 수준과

관계있으며 저학력일수록 보수적이라는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의 효과는 네 가지 하위척도와 전체척도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F=9.81 \sim F=28.14, p<.000$). 교육 수준별 평균을 보면 일관적으로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이, 고졸보다는 대학이상의 집단이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집단별 차이의 유의미성을 Scheffe 검증으로 살펴보니 직업척도에서 고졸과 대학 이상 집단의 차이와 사회문화척도에서 중졸과 고졸집단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척도 모두에서 세 가지 교육 수준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4) 변별타당도

다음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동 검사 점수와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성역할의식과 남녀평등의식의 개념의 차이를 이미 설명하였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Bem의 BSRI와 SRES 사이의 변별타당도를 입증한 바 있다(King과 King, 1990; Cammarata, 1986).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바에 의하면 KSRI 총 40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9035$ 로 나타났으며, 여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749$, 남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alpha=.9008$ 이었다. KGES와 KSRI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결과 두 검사의 변별성을 알 수 있었다. 우선 Bem이 초기에 양성성 점수를 계산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성성 척도 평균에서 여성성 척도 평균을 뺀 값을 양성성 점수로 정의하여(0에 가까울수록 양성적이고 점수 차이가 클수록 성전행화된 것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전체 척도점수 및 각각의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더니 표 11과 같았다. 양성성 점수와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전체척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r=-.1598$, 하위척도와 상관관계는 $-.1390 \sim -.1520$ 사이로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응답자를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남녀 평등의식 검사에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KSRI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KGES와 KSRI는 차별화된 두 개의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한 번만 실시했으므로 모든 종류의 오차의 원천을 밝힐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α 계수와 Spearman-Brown의 반분신뢰도를 구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전체 척도의 경우 Cronbach α 계수가 .9461이었으며, 특정 문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α 값이 .9460대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의 오른쪽 네 개의 열은 척도를 반분하였을 때 각각의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 Spearman-Brown의 반분 신뢰도 계수, 각각의 부분에 대한 α 계수 등을 보여준다. 전체 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Spearman-Brown 계수가 .9351였으며 반분된 척도 각각의 총점 사이의 상관관계 계수는 .8780이었다. 하위척도 중에서 α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교육척도(.8609)이며, 그 다음이 직업척도(.8585). 세 번째가 가정생활척도(.8446)이고, 사회문화척도(.7324)가 가장 낮았다. 이는 척도별 내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교육생활척도의 경우 제도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척도

표 11. KGES와 KSRI 사이의 상관관계: 일반 성인집단

	전체	가정	교육	직업	사회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1598	-.1461	-.1390	-.1496	-.1520	.6547	-.5552
남성성	-.1038	-.0878	-.0702	-.1076	-.1197		.2651
여성성	.0896	.0898	.1001	.0724	.0622		

표 12. 전체 및 하위 척도별 신뢰도

척도	대상	Cronbach α	반분검사간의 corr	반분신뢰도 SB	α part1	α part2
전체	일반남녀	.9461	.8780	.9351	.9078	.9081
	일반여성	.9347	.8446	.9158	.8676	.8925
	일반남성	.9314	.8424	.9145	.8635	.8852
	운동가여성	.9643	.8965	.9454	.9090	.9449
가정	일반남녀	.8446	.7279	.8426	.7140	.7454
	일반여성	.8122	.6968	.8213	.6685	.6931
	일반남성	.7912	.6407	.7810	.6645	.6488
	운동가여성	.8727	.7768	.8744	.7467	.7899
교육	일반남녀	.8609	.7434	.8528	.7726	.7428
	일반여성	.8370	.7133	.8326	.7269	.7158
	일반남성	.8533	.7198	.8371	.7689	.7268
	운동가여성	.8905	.7778	.8750	.7160	.8296
직업	일반남녀	.8585	.7242	.8401	.7835	.7267
	일반여성	.8258	.6703	.8026	.7322	.6868
	일반남성	.8260	.6710	.8031	.7423	.6737
	운동가여성	.9047	.7866	.8806	.7879	.8334
사회	일반남녀	.7324	.6150	.7616	.5910	.5366
	일반여성	.7139	.5692	.7255	.5587	.5430
	일반남성	.6564	.5727	.7283	.4684	.4365
	운동가여성	.8745	.7922	.8841	.7381	.7950

표 13. 전체 및 성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집단	통계치	척도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전체
전체성인남녀 (N=1,627)	평균	57.668	58.129	56.018	51.527	223.834
	표준편차	8.698	9.264	9.234	7.206	31.622
	범위	31~80	28~80	25~80	29~80	128~316
여자 (N= 873)	평균	61.395	61.024	59.807	54.096	237.147
	표준편차	7.888	8.601	8.381	7.077	28.695
	범위	37~80	36~80	32~80	35~80	153~316
남자 (N= 754)	평균	53.355	54.762	51.658	48.614	208.527
	표준편차	7.522	8.864	8.192	6.174	27.674
	범위	31~76	28~80	25~78	29~73	128~294

는 이성관계, 사회활동, 미디어 등 비교적 이질적이며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3. 검사의 표준화

검사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검사의 실시, 점수의 계산 및 전환, 해석 등 제반 절차를 표준화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특정 집단별로 규준을 제시하

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규준은 명백히 정의된 어떤 집단들의 점수들로 나타나며 개인의 검사 점수에 대한 해석에 도움이 된다(이순목과 이봉건 역, 1995).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임상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즉, 개인을 '매우 불평등한 사람', '중간 정도인 사람', '매우 남녀평등한 사람' 식으로 분류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점수기준

도 없다. 대신 동 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남녀평등의식의 개인차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으므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더 남녀평등적'이거나 '덜 남녀평등적'이라는 비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실시 목적이 개인에 대한 선택이나 배제 등의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는 드물고 대신 개인차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장 기본적인 성별 기준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사용자들이 특정 개인의 검사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갖도록 해주기 위하여 기준 정보를 제공하였다. 기준은 두 가지 종류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백분위점수로서 기준표집 중 해당 점수 또는 그 이하 점수를 얻은 사람들의 비율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원점수에 대해 평균이 50, 표준편차 10으로 전환한 T-점수이다.³⁾ 이 표들을 작성하는데 근거가 된 기준 표집은 제Ⅲ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전국의 권역별 주요 4대 도시인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627명이다. 따라서 읍·면 단위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정보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V. 결 론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1990년대 들어 점점 정교해져 온 성차별의 개념을 반영하면서,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라는 생활 영역의 차원과 남녀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태도, 역할 및 행동에 대한 규범, 권한 및 권력에 대한 태도, 성차별 인지도 및 평등정책에 대한 태도라는 평등성의 질 차원

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성평등 혹은 성차별적 태도를 다루는 검사들이 상당수 축적되어 온 서구와 달리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된 남녀평등의식검사가 전무하다시피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현실세계에서 남녀 관계를 맥락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측면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는 최근 미묘하고 암묵적인 성차별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남녀평등의식에 있어 특수한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는 검사, 또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수용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는 검사들이 개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전통적인 검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교하고 현대적인 의미의 성차별 또는 성평등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검사를 지향하였다. 동 검사 결과 생활영역별 요인 구조에서 가정생활척도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주의요인이 나타난 것은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 남녀평등의식의 구조요인이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절차를 통한 검사의 개발을 지향하였으며 최종 검사 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 검사가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양호한 검사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일련의 예비조사 과정과 1,600명 이상의 표본에 대한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은 하였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한 후속 연구들이 축적되어질 때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검사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전체 척도로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의 하위척도별로도 실시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 성별 기준이 제공되어 검사 실시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를 활용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요구가 가져 올 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

3)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크지만 만일 표본이 작을 경우 백분위를 이용하여 Z점수로 전환한 다음 다시 점수를 읽어 T-전환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기준을 현행화할 때 반영시키고자 한다.

사자의 태도나 검사 분위기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응답자들의 은폐성향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예: filler 문항)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동 검사는 개발된 이후 고등학교 상급학년생부터 일반성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이 정책의 성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 졌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개인의 점수와 실생활에서의 행동성향을 연관짓는 해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⁴⁾

남녀의 역할이나 특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과거 여성의 취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나 가정 안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도 근대 초기에는 가장 협소한 의미의 기회의 평등개념으로 해석되던 것이 그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요구하는 조건의 평등개념으로,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결과의 평등개념으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이렇듯 성별 역할관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측정하는 검사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과 제약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를 활용하는 이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양희(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9권 제2호, 111-149.
 김영희(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7,

153-182.

김영희(1995).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 개발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183-213.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 1990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 초록, 57-67.
 통계청(1998). 인구동태통계연보.
 한국행정구역총감관련회(1998). 한국행정구역총감. 서울: 한국행정문화원.
 한정자·김선옥·김원홍·김영혜·김동령(1993).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AERA, APA, & NCME(1986).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N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 이순목·이봉건(1995, 공역). 「설문, 시험, 검사의 제작 및 사용을 위한 표준」. 서울: 학지사
 Ashmore, R. D., Del Boca, K. F., & Bilder, S. M. (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Gender Attitude Inventory, A structured inventory to assess multiple dimensions of gender attitudes. *Sex Roles*, 32, 753-785.
 Ajzen, I., & Fishbein, M.(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888-918.
 Beere, C. A.(1990). *Gender roles: A handbook of tests and measure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Beere, C. A., King, D. W., & King, L. A.(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nokraitis, N. V., & Feagin, J. R.(1995). *Modern*

4) 심사자 중 한 분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을 언급해 주었음.

- Sexism*(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gan, D., & Kutner, N. G.(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Feb), 3-40.
- Cammarata, U.(1986). Scala dell'uguaglianza sociale dei sessi: Primi risultati di una ricerca sul campo per l'adattamento italiano.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First results from a study using an Italian translation]. Dissertation involving Italian translation and use of SRES, University of Padova.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102.
- Fassinger, R. E.(1994).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Attitudes Toward Feminism and the Women's Movement Scale(FW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389-402.
- Glick, P., & Fiske, S. T.(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135.
- Helmreich, R. L., Spence J. T., & Wilhelm, J. A. (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7, 1097-1108.
- King, L. A., & King, D. W.(1990). Sex-role egalitarianism and androgyny: Discriminating evidence. *Psychological Reports*, 67, 1129-1130
- King, L. A., & King, D. W.(1993).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manual*. Port Huron, MI: Sigma Assessment Systems, Inc.
- King, L. A., & King, D. W.(1997).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Develop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71-87.
- Kline, D.(1993).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McHugh, M. C., & Frieze, I. H.(1997). The measurement of gender-role attitudes: a review and commenta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6.
- Nunnally, J. O.(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smond, M. W., & Martin, P. Y.(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Nov.), 744-758.
- Spence, J. T., & Helmreich, R. L.(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th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6-67.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T.(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 43-44.
- Swim, J. K., & Cohen, L. L.(1997). Overt, covert, and subtle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03-118.
- Swim, J. K., Aikin, K. J., Hall, W. S., & Hunter, B. A.(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Tougas, F., Brown, R., Beaton, A. M., Joly, S.(1995). Neosexism: Plus ça change, plus c'est parei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842-850.
- Twenge, J. M.(1997). Attitudes toward women, 1970-1995: A meta-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35-51.

Development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KGES)

Yanghee Kim and Kyoung Ah Ju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s gender studies have been flourishing in Korea in the past 10 years, the themes as well as the scope of the study have been also expanding. However, adequate instruments for assessing people's attitudes toward women or gender equality had been lacking. Many studies look at the aspect of gender role consciousness in order to diagnose the state of people's awareness of women-related issues and to lay a foundation for developing policy measures to solve women's issues. Due to the absence of measurement tools with proven reliability and validity, as well as cultural relevancy, most of these studies employ scales imported from abroad. Employing scales developed in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al norms and customs in relation to gender behavior can pose many problems. For instance, scales such as BSRI(Bem Sex Role Inventory, by Bem, 1974) and SRES(Sex Role Egalitarianism Scale, King & King, 1983) do not deal with issues such as boy preference and married women's relationship with in-laws hav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lives of women in Korea because of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Noting this problem, it is also common for researchers to make up a scale by him/herself and use it without adequate validation processes. In this context, KWDI launched a research project to develop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KGES), aiming to capture uniqueness of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men in Korea. First, the concept of gender egalitarianism was defined and then a theoretical framework or structure for the scale was formulated. Three preliminary surveys were conducted for the construction and review of items as well as for a pilot testing of the scale. Two main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N=1,627) and members of women's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validating the scale as well as of securing the norms. The complete version of the KGES consists of 80 items in four life domains(family, work, education, and culture). The reliability scores(Cronbach α) for the whole scale was .9461 for the general public(men and women), .9347 for women, .9314 for men, and .9643 for the members of women's organizations.